

‘지속의 미’ 개념을 통한 도시농업경관 해석

신명진* · 배정한**

*서울대학교 대학원 생태조경학전공 ·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I. 머릿말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지속 가능성 담론은 새로운 도시 경관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낳고 있다.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도시 경관은 에디블 랜드스케이프(edible landscape)로, 북미와 유럽에서 경제적 이유뿐 아니라, 문화적 경험을 위해 참여하는 도시 농업의 한 형태이다. 론 베레잔에 의하면 설계를 통해 보다 미적인 형태를 갖춘 것에 대한 선호가 에디블 랜드스케이프의 출발점이다(Berezan, 2007). 따라서 에디블 랜드스케이프는 생산성뿐 아니라, 경관으로서 작용 가능한 미적 경험의 장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도 2011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후 발표된 도시농업 관련 보고서들을 살펴보면 미적 경험의 장으로서 도시농업이 중요하게 작용이 가능하다는 측면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난다(서울연구원, 2012: 서울도시농업, 2013). 즉, 도시농업경관이 미적 경험의 장으로 어떻게 작동하고, 작용 가능한지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도시농업경관의 미적 기능을 담론화하여 도시 미관의 차원에서 도시농업의 역할을 논하기 위한 바탕을 마련하고자 한다. 조경이론가 엘리자베스 K. 마이어(Meyer, 2008)가 제안한 ‘지속의 미’를 분석의 틀로 삼아 도시농업경관의 미적 기능을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에디블 랜드스케이프가 미적 경험의 장으로 작용하는 방식에 대해 고찰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도시와 농업의 분리와 화해

18세기 산업화 이전 모든 농업은 도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었다(Mumford, 1961). 산업의 발전은 교통과 유통의 발달로 이어졌고, 이는 곧 도시 공간과 농업 공간의 분리를 낳았다(Tenhoor, 2010). 하지만 현대 도시 문화 안에서 도시 농업의 경관적 가치가 점차 재발견되고 있다. 도시와 농업의 ‘화해’라고 할 수 있다. 도시농업 공간의 경우,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지속적인

도시 경관의 하나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이론적 논의가 바탕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현대 도시농업에 도시적 경관의 요소라는 의미를 재부여하고, 에디블 랜드스케이프를 현대 도시 내 미적 경험의 장으로 재설정하기 위한 이론적 접근이 필요하다.

2. 지속의 미

엘리자베스 K. 마이어는 “미’의 특정 종류의 경험은 하나의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를 조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미는 환경 윤리를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말한다(Meyer, 2008). 지속의 미(sustaining beauty)란 지속 가능한 경관의 경험에서 외관(appearance)의 수행(performance)을 지칭하며, 조경 설계의 경험에서 감각적 이해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매체이다. 마이어의 주장에 따르면, 지속의 미를 경험함으로써 “우리를 둘러싼 생물종과 생태적 지위의 새로운 이해와 공감”이 가능하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설계에 의한 경관의 외관을 경험하는 것은 지속의 미를 경험하는 것이며, 이 경험을 통해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감각적 이해가 가능하다. 마이어는 지속의 미의 사회문화적, 개념적, 영속적, 예술적, 환경적, 경험적, 부지 특수적, 재생적, 그리고 교육적 요소를 설명하며, 지속의 미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한다.

마이어는 나아가 시간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시간의 경과를 통한 장소의 친숙함을 설명한다(Meyer, 2009). 경관의 예측불가능성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친숙해지고, 익숙하지 않은 장소로 경관을 변모하게 한다. 마이어는 이를 두고 ‘이상하게 친숙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 미적 개념은 이-푸 투안의 ‘친밀한 장소 경험’과 같은 맥락에 놓여 있다(Tuan, 1977). 투안은 흔한 일상적 경험은 그 자체로는 미학적 사유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무의식 안에서 장소에 대한 애착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한다. 요약하자면, ‘이상하게 친숙한’ 미는 추상적 지식이 아닌 사용자가 움직이며, 충분한 시간을 보낸 경관 경험의 결과이다. 경관의 프로세스가 형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에디블 랜드스케이프의 경우, 생성된 외관의 수행을 살펴봄으로써 지속의 미의 생성 방식과 미적 경험의 장으로서 경관의 작동을 확인할 수 있다.

III. 사례 분석과 고찰

1. 시애틀 P-Patch 프로그램

시애틀의 P-Patch 프로그램은 북미에서 가장 잘 알려진 에디블 랜드스케이프 프로그램 중 하나로, 1973년 창안된 이후 도시 곳곳의 유휴 공간을 영구 텃밭 공간으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Thoren, 2014). 대다수 부지가 조경 컨설팅 또는 설계를 통해 공동체 정원이자 생태적 정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Hou 외, 2009). 사례로는 2013년 1차 공사를 끝낸 'Beacon Food Forest(BFF)'를 들 수 있다. BFF는 P-Patch 특유의 텃밭 시스템 외, 퍼마컬처(permaculture) 농업 방식을 도입했다. 퍼마컬처란 농업 시스템의 발전형이자 지속 가능하고, 자급자족하도록 구성된 하나의 생태 시스템으로 숲의 구조를 재현한다.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개입 없이 실제 숲으로 작동하며, 자연스럽게 도시 조직에 흡수되는 것이 목표이다.

P-Patch 프로그램은 공동체 구축과 녹지 증가 등 사회문화적 측면뿐 아니라, 에디블 랜드스케이프가 영구적 경관으로 뿌리내리도록 돕고 있으며, 나아가 지속의 미와 시간성을 결부하여 도시농업 계획의 의미를 재확인시켜 준다. 한 장소의 지속적인 변화가 외관에서, 또 내재된 작동 원리에 의해 일어난다는 점은 도시농업경관이 지속 가능할 뿐 아니라, 도시 인프라스트럭처로서 자리 잡게 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2. 미적 경험의 장으로서 에디블 랜드스케이프

쏘렌은 도시농업 부지가 조경의 대상으로 자리 잡지 못하는 점에 아쉬움을 표하며, 농장과 정원이 농부와 정원사, 그리고 작물의 필요에 반응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조경 설계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Thoren, 2014). 쏘렌의 관점이 조경의 기능적인 면을 설명한다면, 마이어의 관점은 에디블 랜드스케이프의 미적 기능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마이어의 이론(Meyer, 2009)에 따르면, 도시에서 생산한 농업 경관이 친숙해지는 과정을 통해 에디블 랜드스케이프는 장소화될 수 있다. 더불어, 일반에 공개된 P-Patch 프로그램에서 지속의 미는 직접적 참여자들 뿐 아니라, 부지가 위치한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마이어가 말한 미의 특정한 경험이 사회 결속력을 증진시키고, 외관이 조경의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 아래, 에디블 랜드스케이프는 정원 만들기와 관리, 그리고 경관의 공유라는 경험으로 공동 가치를 지닌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이 과정은 체계적인 이성적 논리가 아닌, 경관의 외관에서 감각적으로 전달되는 가치들로 이루어져 있다.

P-Patch 프로그램은 설계된 공간과 일상의 공간 간의 만남을 주선해 공간의 장소화와 지역의 공동체화를 이끌어낸다(Hou 등, 2009). 이 사례는 도시농업이라는 현대 도시의 현상을 경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조경을 역할을 보여준다. 현대의 에디블 랜드

스케이프가 사회문화적 목적을 띠고 있다는 전제 아래, 이 경관은 사회적으로 유의미하며, 공공과 주변에 그 목적과 내용을 소통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 의무를 관철시키는 데 있어 경관의 외관, 또는 경관을 감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무언가는 분명 조경의 영역이다.

IV. 맺음말

이 연구는 '지속의 미'라는 사회문화적 요소를 도시농업 해석에 도입함으로써 에디블 랜드스케이프를 재평가하고자 했다. 현대 도시에서 에디블 랜드스케이프는 지역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담론 안에서 에디블 랜드스케이프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일시적 현상이 아닌 계속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을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국내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도시농업의 미적 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도시농업경관의 잠재력은 경관의 미적 가치에 대한 담론을 바탕으로 펼쳐지기 때문이다. 마이어가 인용 하듯, "필요한 것은 좀 더 많은 정책들이나 기술들이 아니라, '태도들, 느낌들, 이미지들, 이야기들'"(Meyer, 2008: 9)인 것이다. 따라서 도시농업경관의 외관이 수행하는 지속의 미에 주목함으로써 점차 늘어나는 도시농업 공간이 도시 공간의 부산물이 아니라, 전체 도시의 주축을 이루는 핵심 요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서울도시농업(2013) 서울시 도시농업 마스터플랜 연구. 서울: 서울도시농업.
2. 서울연구원(2012) 서울시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서울: 서울연구원.
3. Beacon Food Forest(2016) Beacon Food Forest. <http://beaconfoodforest.org>
4. Berezan, R.(2007) The Edible Landscape: An Urban Farming Renaissance. <http://www.cityfarmer.org/Berezan.html>
5. Hou, J., J. Johnson and L. Lawson(2009) Greening Cities, Growing Communities. Seattle, WA: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6. Meyer, E. K.(2008) Sustaining beauty: The performance of appearance. *Journal of Landscape Architecture* 3(1): 6-23.
7. Meyer, E. K.(2009) Slow landscapes. *Harvard Design Magazine* 31: 22-31.
8. Mumford, L.(1961) The City in History. London: Secker & Warburg.
9. Phillips, A.(2013) Designing with Urban Agriculture. Hoboken, NJ: John Wiley & Sons, Inc.
10. Tenhoor, M.(2010) The Architect's Farm. Amale Andraos, eds. Above the Pavement, The Farm! New York: Princeton University Press.
11. Thoren, R.(2014) Landscape of Change: Innovative Designs and Reinvented Sites. Oxford: Clarendon Press.
12. Tuan, Yi-Fu (1977) Space and Place. 구동희, 심승희 역. 공간과 장소 (2007) 서울: 대운(도).